

바울처럼 겸손히,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함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상으로써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된 올 한해 뿐 아니라 우리의 한 평생
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聖經註釋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 Jacques Ellul -

쟈크 엘루의 『뒤틀려진 기독교』

조 용 수(원 2)

가치인식의 체계에는 항존하는 객관성과 더불어 언제나 대위적인 안티테제가 존재하는 법이다. 비록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인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채 지나친 자기 주관화의 합리화에 젖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을 뛰어넘은 지극히 주관적 이해와 심리적 해석이 농후한 부분에 해당될 때는 필연적으로 재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재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존하는 체계와 가치영역에 대한 지나치리 만큼 대담한 반역과 더불어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사변적 변증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역사란 해석되기 이전에 하나의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정반으로 전개되는 변증적 논증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해석자의 편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속에서 또 다른 합의 대안을 발견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소박한 하나의 사상적이고도 학문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란 결코 사상적 유추의 빙추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혹은 편집되거나 각색 되어져서는 안되는 본래적 순수함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역사를 평가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자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뛰어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풀리지 않는 소위 역사의 모순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쟈크 엘루는 바로 이같은 모순점들을 지극히 아슬아슬한 한계점 위에서 마치 꼭예사가 외줄을 타듯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밀도있게 제시하고 있다. 사실 그의 저서를 대하면서 그 논리적 전개의 치밀함과 명증성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첨예하게 다듬어진 듯한 그의 사색의 예리함이 오

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로 긴장되게 만들었고 오히려 예리함의 끝을 적절히 소화시키지 못해 논리적 연관성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법철학자임과 동시에 역사와 사회학을 동시에 섭렵함으로 인한 다박한 연변의 축적에 의한 결과 일련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저서를 단순히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조명하기란 다분히 애매한 점도 없잖아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자의 해박함에 못미치는 독자의 우매함의 소치일련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자크 엘률의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저서는 자신의 변증법적 방법을 교회 사에 반영시켜 전통적 교회사에 하나의 대위법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전통적 교회사는 어쩔 수 없이 문화속에 구현된 제도적 교회를 중심으로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 교회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갖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계시가 필연적으로 굽절되어 형성된 ‘기독교의 왜곡’의 역사임을 보이고 있다.

엘률은 그 과정과 원인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결코 교회에서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로 결론을 짓는다.

엘률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사회와 교회의 발달이 성경본문의 생각과는 다른, 즉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와 바울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회, 문화, 문명을 탄생시켰는가 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와 실천 사이에는 단순한 탈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모순 즉 왜곡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자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시의 모든 것을 거짓과 환상, 이데올로기와 상상으로 전락시키며 또한 구원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로 귀결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엘률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것과 교회 및 기독교인들의 실천 사이에 한 없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거리감이 너무도 커서 부패나 왜곡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저자의 논의의 출발은 이 왜곡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논의의 출발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결론과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안티테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정적인 대안을 도출

하려는 식의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접근자체가 가지는 하나의 난점이라면 그것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적절하게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특수성에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과 실천사이에 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추상적으로 유추할 뿐이고 나아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자의 주관적 합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자의 논점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순환성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자 자신의 변증법적 방법론에 기인한 결과였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엘률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두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즉 기독교의 왜곡과 변질에 따른 필연적인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님의 결과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비록 그것의 존재가 모순과 왜곡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이것은 그 자신의 제도화된 교회나 조직화된 교회자체가 이미 침된 기독교인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체제해체적 사상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는 철저히 기독교의 악영향과 악순환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의 교회관은 지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교회가 결코 잃어 버릴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도 조직화된 교회의 이원적인 모순과 극단적 분리를 통해 교회의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과감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교회가 사회의 지배적 흐름에 단순히 부합되게 될 때 화육된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이즘화(-ism)된 기독교를 강하게 거부한다. ‘주의’라는 어미가 붙으면 명확한 원래의 개념에 어떤 새로운 것이 주입되는 것을 뜻하고, 어떤 사상에 ‘주의’라는 말이 붙게 되면 득창성은 제거되고 진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삶 또는 사상은 그 근본성과 항구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창시자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의’ 즉 ‘토마스아퀴나스주의’ ‘루터주의’ ‘칼빈주의’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때마다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엘률은 이같이 이즘화된 기독교라는 말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길다란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이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재이며, 세째로 진리와 사랑안에서의 기독교인 신앙과 생활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라는 말을 그것의 왜곡에 불과한 이데올로기적이며 사회학적인 운동의 경우에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그는 교

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계시를 마음대로 날조한 기독교가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이같은 실패의 메카니즘을 왜곡이라는 것으로 단정짓는다.

그런데 엘률의 이같은 교회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대화시키거나 지나치게 반체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좌익적 우를 범해야만 했다. 즉 침된 기독교(이증화되지 않은)란 모든 방향에서 뒤집어 엎는 것이고 돈이나 정치권력, 도덕조차도 뒤집어 엎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했다.

그는 중세의 역사를 기독교라는 특정종교가 만든 도덕이라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교훈적이고 사람을 가장 유아적으로 만들며 가장 쇠약하게 하고 무책임한 자들로 만들려 하는 도덕에 의해 유지되어졌다고 말하면서, 도덕화된 기독교에 대하여 투쟁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도덕의 체제하에서 교회는 자본주의 체제와 더불어 부르조아가 되고, 도시가 되고, 돈 있는 곳이 되었으며 이제 나아가 기독교는 사회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화정 밑에서는 공화주의자, 왕정 밑에서는 왕정주의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그는 나타나게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독교를 지나치게 체제수호적인 것으로 보았고 시대와 역사마다 달리하는 권력과의 결탁을 통하여 공생해온 체제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는 로마카톨릭에서의 초대기독교에로의 복귀적 종교개혁의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종교개혁 역시 권력과 정치에 결탁되는 하나님의 과정으로만 파악할 따름이고, 개혁주의라는 것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바발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계시의 변질을 기독교의 세속적 성공에 그 결과적 원인을 찾고 있다. 그는 기독교가 그 시초에 있어서 결코 민중의 아편이 아니었으나 이런 형태의 종교들이 퍼지면서 그것들에 의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과 같은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엘률의 이같은 기독교의 역사평기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체제적 종교현상을 통하여 집단화시켜, 사회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입신과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메카니즘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 물론 이것은 엘률식의 삭막한 비평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평가이기도 한 것이다. 집단화가 필연적으로 교회의 제도화를 초래하게 된 것은 역사 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남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연신학에 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고 은총에 근거한 신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

과를 넣고야 말았다.

엘률은 일곱개의 개별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그의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 가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모든 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요약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는 개별적인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자신의 논지에 적절하게 부합시켜 나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들에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엘를은 역사와 사회현상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그의 논제에 대한 태도는 밑도 끝도 없는 순환적 논리에 빠져 실질적 내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시종일관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지적이고 논리적인 유희 일 수도 있으며 자칫 교회사에 대한 맹목적 비판의 자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결과적인 논지의 종지부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엘률의 사상이 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거나 여과없이 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보편성과 명제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리하다 못해 섬세할 정도의 질묘함을 발견할 수 있는 번득이는 기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음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의 성경해석의 방법은 침으로 독특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성경에 대하여 “하나의” 메세지, 즉 ‘복합적이면서도 통합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학자들의 해석같이 성경적 메시지의 통합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으며, 보수적 학자들의 해석같이 메시지의 복잡성(Complexity)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도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엘률의 접근은 전형적인 자유주의나 전형적인 보수주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신선힘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뒤틀려진 기독교’를 통해 왜곡된 교회의 역사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그 뒤틀려진 틈새속에서 면면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적 역사를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거짓 속에서도 언제나 바른 ‘중심’과 정당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ppur si muove’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한 사상가의 생각과 이념을 논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궤변만큼이나 확 당무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다.

쟈크 엘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 1912년 보르드시에서 태어난 그는 역사학, 사회학, 법학등의 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암스텔담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찬란한 학문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학문과 사회적 정열을 동시에 실천한 행동가이기도 하였다. 1936년 ~39년 사이에 프랑스정계에 투신하여 활동하였고, 1940~44년에는 레지스탕스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1946년부터 53년까지 W.C.C의 사업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에도 프랑스 개혁교회 협의회 위원, 『신앙과 삶』(Foiet Vie)의 편집주간으로 최근까지 활동하다가 은퇴하였다.

그는 60여년의 학문적 생애동안 21권의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④. **儒學**

· 편집 후기 ·

“책 한 권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확인했다.
책이란 무엇인가? 과연 “고려신학보”는 학우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한 이 책이 신학을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사랑 받기를 바랄 뿐이다.”

高麗神學報

제25집

1994. 2. 19. 인쇄

1994. 2. 22. 발행

발행인 : 윤종국
주간 : 신원하 교수
편집인 : 이상영
편집위원 : 김규신, 박시영, 김수미
발행처 : 고려신학대학원 편집실
인쇄처 : 도서출판 예향
☎ 803-8444~5
등록번호 : 제카 3-226
부산시 서구 암남동 23 ☎ 256-3181~2

□ 본지는 도서법지 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값 3,000원